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박차

꼬막 및 수산자원회복 통한 갯벌어업 활성화

벌교읍 여자만 일원 2021년까지 50억 원 투입

보성군은 꼬막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갯벌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벌교읍 여자만 일원에 2021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 관리로 꼬막 자원회복 증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추진 1년차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꼬막 모패단지 매입·살포 ▲모패단지 조성예정지 갯벌환경개선 ▲자원량 파악 및 꼬막 폐사원인 규명 ▲자원조성단지 경계표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어촌계,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을 모시고 '2017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이날 전문가 및 어업인들이 제시한 꼬막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꼬막 401만 마리 모패단지 조성상황, 꼬막자원 폐사의 주된 요인이 수위상승으로 인한 지반 변동이라는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어업인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꼬막 매입방류 ▲가리맛조개 자원조성 ▲짱뚱어 종자방류 등을 실시하여 갯벌자원 다양화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어장관리와 꼬막자원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어촌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군정평가단 정기회의 개최

올 한해 추진 주요성과 평가 · 신규시책 설명

영광군은 올 한해 추진했던 군정주요성과를 군민에게 평가받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군정평가단 정기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실과소에서 올해 추진했던 주요 시책 1건 이상 선별하여 37건의 설문문항을 만들어 사전에 미리 배포?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주요 시책 및 2018년 신규시책을 설명하고 평가단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군민행복(100원)택시 운행, 이동목욕차량 운영, 노인복지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복지 분야에 점수가 높았으며,

평가단과의 대화시간에는 물절약 차원에서 스포티움 수영장 운영 일시중지, 떡 산업 브랜드화에 의한 영광 쌀 소비촉진 유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지원, 낙월도 지붕개량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외에 대체지붕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에 군민의 대변하는 평가단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가뭄 극복과 AI차단을 위한 방역에 평가단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아동복지교사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함평군는 18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교사들은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예방'을 주제로 신고의무자로서 교사의 역할 및 대처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역사 · 문화 집대성한 '신안군지' 발간

신안군은 신안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생태환경 등을 집대성한 신안군지를 발간했다. 총 4권 4,000쪽에 걸쳐 서술된 군지는 지난 2000년 발간된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신안군의 모습과 발전상을 반영했다.

군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한 14개 읍면별 문화자원 지표조사를 2014년에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안군지 발간에 착수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추진된 군지 발간은 각 읍면의 향토사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43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자료조사와 집필, 교정, 감수 등을 거쳐 4년간의 오랜 산고 끝에 군지발간이 이루어졌다.

군지는 총 4권으로 제1권 '역사와 문화유산', 제2권 '삶의 환경과 사회상', 제3권 '섬사람들의 생활문화', 제4권 '신안의 섬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제4권은 섬들의 고향 신안군의 특징을 잘 설명하기 위해 각 읍면의 본섬과 부속 섬들 중 유인도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길호 군수는 "신안군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신안 섬들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선조들이 지켜왔던 훌륭한 터전과 정신문화를 계승하는데도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전국의 지자체 및 대학 등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안=박응식 기자

구례군, 감염병 예방 기침예절 · 손씻기 교육

어린이집 10개소 방문 면역력 약한 어린이 대상 실시

구례군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구례어린이집 등 10개소를 방문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인 올바른 기침예절 지키기와 손씻기 요령 6단계 실천법을 알렸다.

겨울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위생수칙으로 기침이 나올 때는 손이 아닌 팔꿈치 안쪽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하며, 신체 가운데 각종 유해세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손의 위생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손세정제 등을 배부하였다. 또한, 우리의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 기침체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관화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고흥군, 용접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강

고흥군이 지난 18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용접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용접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7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용접분야 일자리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농어촌 산업 종사자들의 실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다. 교육과정은 18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총 2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기수별 15명 총 30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장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책 마련…지원책도 함께 소개

장성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군수를 비롯해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20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2017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생업 현장에서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로, 현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소개했다

현재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80여명에게 점포임대료 5억 4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자금 차액 3%를 지원한 것에 더해 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2%를 추가로 경감해 총 5%의 대출이자를 보조해주고 있다.

장성읍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상가를 운영하는데 점포임대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됐는데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군의 기초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장성=반정모 기자